

# 글로벌 피스 경제 포럼

“평화 통일과 경제 개발”

대한민국 서울

주제 강연: 문현진 박사

2015년 10월 8일

---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의 후반기에 이곳 대한민국에서 제 1회 글로벌 피스 경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민들에게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변환기이며, 그 변화는 오늘 우리의 행동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미래를 위해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박대동 국회의원 그리고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외에서 먼 길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비니시오 세레소 전 과테말라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전 케냐 총리와,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해외귀빈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통일을 향한 전진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지만, 통일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나, 9월 28일 UN 총회에서 박대통령 연설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가 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평화통일 문제를 주도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우호관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지원해온 나라 중에 소련은 이미 사라졌고 중국은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출판한 '코리아 드림'이라는 책의 제 3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과거 30년 이상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면서 6자회담의 틀을 형성해 온 낡은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새로운 통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통일된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일을 위한 기능론적인 “절차들”에 매달리기 보다는 통일이 가져올 “결실”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저는 통일 문제를 남북 정부가 배타적으로 주도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주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흥익인간 이상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분단 70 년은 장구한 5 천년의 우리 역사에 비하면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 여 년 전에 선친이신 문선명 총재가 처음으로 북한의 문을 열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교류는 물론 이에 기반한 햇볕 정책 등이 실패하는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표리부동한 북한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실책에 있었습니다. 남한의 단체들은 합의된 포괄적 전략 없이 북한으로 무작정 달려갔으며 서로의 목적이 상충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북관계의 비전과 명확한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류는 오히려 북한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핵개발을 지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포럼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 제 책에 제시된 비전이 한국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원드림 원코리아 캠페인’의 깃발아래 7 대종단과 1100 여개의 시민 단체들과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고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45 년 이래 처음으로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중심한 새로운 통일운동이 한국을 기점으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 70 주년을 기념하여 상기 국가들에서 한국 통일을 결의하는 축제와 회의들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 만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가운데 열릴 행사를 통해 그 여세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SBS 는 이를 전국에 중계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지난 세기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과 새로운 조국의 창건은 제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평생의 염원입니다. 제 종중조부께서는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셨고 1919 년의 3.1 운동과 기미독립선언문 작성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저의 선친께서도 1991 년 역사적인 북한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셨고 한반도 내에서의 다양한 평화운동과 경제사업을 전개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는 통일한국을 위한 21 세기 경제모델 건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경제개혁의 필요성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의 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국통일로 발생하는 기회들과 도전은 독일통일의 성과를 확연히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첫째, 통일이 되면 서로 상반되는 정치, 사회, 경제체제의 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남북한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시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것입니다. 둘째, 통일은 특별히 핵위협과 핵확산으로 인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로부터 기업까지 한국의 기관들은 통일과업을 주도해갈 수 있는 경험과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경제통합은 남과 북의 정치와 사회 생활의 통합을 위한 다른 모든 노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결과, 과거의 방식과 진부한 패러다임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보다 역동적인 모델들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에 걸친 남한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재벌들의 성장과 그것을 지원해준 정부의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전략적 산업들의 규모를 키워야 했던 70년대와 80년대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내수시장마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와 같은 구조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며, 혁신과 유연성도 이끌어낼 수 없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동적인 경제의 엔진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자본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한국 자산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남한의 구시대적 경제구조로는 통일과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이 다가오기 전에 효과적인 경제전략과 그에 따른 구조적 영향에 대해 지금 당장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 현 체제의 결함들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삼십대의 높은 실업률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잘 교육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젊은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가 넘으며 1999년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청년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과 함께 생각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기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벌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과격한 노동운동이 부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정실 자본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계는 법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줄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 창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현재 수준을 초월하여 돌아갈 것이며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필요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남북간의 통일문제를 진전시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건강하게 통일을 주도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 한국 경제의 개혁: 금융시장의 자유화

현재 한국은 소수의 재벌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세기말에 겪은 IMF는 그전보다 더 소수 재벌들에게 경제 통제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7, 80년대의 정부나 경제지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은 경제활동의 모든 국면들을 지배하여 이익을 축적하고 공급자들을 압박하며 동시에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조작, 그리고 과도한 힘의 집중으로 인한 부패 등에 의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수의 재벌가들에 휘둘림으로써 기회와 혁신과 창업정신이 억압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나라 전체가 힘들게 됩니다. 재벌과 그들의 구태의연한 유산에 대한 반대정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런 현상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는 전반적으로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해가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재벌들은 정치경제계에 영향을 발휘하며 큰 어려움 없이 경영해 왔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현실은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창업가들이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규제들을 헤쳐 나가고 재벌의 영향을 받는 거대하고 부패한 정부의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과 인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 친분관계나 후견인이 없는 일반인들은 기존의 재벌 체제에 속한 톱니바퀴가 되지 않고 자본을 창조자로서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미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경기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책도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국경제는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정치와는 달리 아직도 과거의 틀에 얽매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정착에 이어 경제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국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즉 혁신하고 위기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길이 바로 현 금융계의 체제적 한계와 일련의 정부규제들을 쇠신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정책의 방해 없이 자본이 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자유시장은 대기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균형을 맞추듯이 어떤 요구도 자연스럽게 충족시킵니다. 그것은 필요한 기회에 필요한 자본이 확산되어 더 큰 자본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초과자금을 묵히지 말고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위해 투자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그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재벌 독과점 현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재원을 구할 수 있다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새로 시작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융분야가 개선되고 전통적인 은행구조에 구속되지 않는 사모펀드와 투자은행이 뒤따라 성장하여 전체 규모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금융분야의 활성화는 다른 분야들, 특히 기술분야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신생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입니다.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나 쿠팡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계는 없습니다.

금융분야의 개혁은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 외에도 더욱 강력하게 전통적인 산업분야들이 시장원칙에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합병과 LBO (기업담보 차입매수) 대상이 될 것이며, 서구 민주주의의 예처럼 자본축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해관계자들과 한국민과 한국의 이익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개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시장과 원자재와 투자를 확보해야 하고, 이어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립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수치상으로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 저인플레이와 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생존과 성장은 한국금융이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그것을 한국에 어떻게 접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우 관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위험감수를 싫어하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국내외의 기회와 자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유럽은 비교적 성장기회들을 자본화하는데 뛰어납니다. 그들은 언제나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재 시장과 상황 너머를 주시하고, 제약과 한계를 넘기 위한 방법들을 끊임 없이 모색합니다. 이러한 개척자적 성향은 위기를 관리하며 판을 키우고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윈윈이 되도록 합니다.

## 파라과이의 사례

한국 금융기관들이 잘 관리되는 성장기회에 대해 보통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한 예로서 파라과이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의 파라과이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외국자본이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피스재단이 활동을 시작한 2008년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의 정치사회적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단계들을 설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파라과이는 국가적인 변혁을 이뤄내고 있으며, 가능성이 상당한 미개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니카노르 두아르테 대통령과 약 두 시간에 걸친 독대를 통해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외국인 소유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그 휘하 참모들에게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보편원칙을 지키고 누구든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파라과이 정부가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책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게 하기 위한 정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남미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이 정책연구소는 파라과이에서 가장 존경 받고 영향력 있는 기관이 되었고 파라과이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우수한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프로그램들을 시도했으며 모범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마침내 소위 “국가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파라과이가 스위스나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물류, 제조, 금융 및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미의 관문이자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파라과이의 전략적인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싼 전력 원가와 세금, 우호적인 투자법, 정치적 안정, 그리고 젊은 노동력은 파라과이를 숨겨진 보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매력은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미의 무능국가로 간주되는 제 3 세계 경제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인 것입니다. 파라과이에 투자함으로써 한국금융기관들이 얻을 체험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을 통합하는데 직접 전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경험은 현재 수준을 넘어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이 통일되었을 때 발생한 많은 어려움들은 급작스런 동독의 붕괴와 그에 대응해야 하는 서독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통일은 파라과이 개발을 통해 습득한 직접적인 국가건설의 경험과 실습을 통해 예상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과이 투자가 갖고 있는 이점인 것입니다.

## 정부 정책과 규제의 개혁

그런데 저는 한국 금융기관과 파라과이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마치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한국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유럽과 남미,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자본들이 파라과이로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 안타깝게도 한국 금융기관들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을 괴롭히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과 시스템의 문제들은 가치의 확대보다 평범한 안전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가로막으며, 분명한 기회를 자본화시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정책은 구모델로 인한 장벽과 제약들을 철폐하고 금융시장을 자유화하여 성장을 이끌어내는 투자를 유도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외 저개발 시장들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실하게 늘려야 하며, 개발시장과 한국 자본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용자보증을 늘리고 보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결론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건국 이상에 기초하여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모델을 본받아 한국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감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이 새로운 21 세기의 패러다임은 통일된 한국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일깨울 것입니다. 한민족의 창의성과 추진력과 심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현재의 한국뿐만 아니라 통일된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의 잠재된 가능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문화와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냉전시대에 분단되어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통일된 새 나라가 외형이나 실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한다면 통일된 한국은 전세계 앞에 성공적인 평화와 발전의 모델로서 귀감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